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쟁점과 동향*

김현균 · 이성훈

공동/서울대학교

Kim, Hyeon-Kyun & Lee, Seong-Hun(2007),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debates y perspectivas, *Revista Iberoamericana*, 18, pp. 105-124.

Este trabajo tiene por objeto revisar algunas conceptualizaciones polémicas y diversos debates trascendentales que han atravesado los llamados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Durante las últimas décadas ha habido una acalorada discusión en torno a este campo de estudio en casi todas sus instancias: desde sus características y objetivos hasta sus orígenes y perspectivas futuras. A lo largo de este proceso los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se han ido convirtiendo en un verdadero paradigma alternativo, cada vez más adecuado a la diversidad y complejidad de la nueva realidad latinoamericana. Como resultado de nuestra revisión se pondría en evidencia que este campo de estudio no representa únicamente una ruptura epistemológica, en lo que se refiere a una visión transnacional y transdisciplinaria de los estudios de América Latina, sino una continuidad de la propia tradición crítica latinoamericana.

Key Words: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tradición crítica latinoamericana/ globalización,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유 전통/ 세계화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L3049)

** 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개요를 문예지 『미네르바』(21호, 2005년 봄)의 지면에 발표한 바 있음을 밝힌다.

I. 서론

1960년대 중반 영국 버밍엄대학에 현대문화연구소(CCCS)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문화연구(estudios culturales)는 문화를 바라보는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하고 기존의 문학 중심 연구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띠면서 새로운 지적 실천(prácticas intelectuales)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문화연구자들은 현실개입을 중시하는 현장 연구와 정신분석학, 기호학, 페미니즘 등 인접학문의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결합하여 경험주의에 기반한 종래의 문화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연구를 고착화된 분과학문 중심의 학문체계가 처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의미화 실천(práctica significante)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연구는 태생적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서구의 이론이지만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지적 기획으로서 지역연구의 성격이 강해 다양한 시각과 전개를 보여주며, 이러한 차별적 성격에 따라 문화연구가 갖는 역사적 의미 또한 달라진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역시 고유한 라틴아메리카적 맥락 내에서 차별적 의미를 구성해내고 있다. 가령, 영어권 문화연구가 주로 현대 대중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데 반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이 외에도 발터 미뇰로(Walter Mignolo)의 경우처럼 식민시대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영국이나 미국 등 제1세계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문화연구와 구별되는 것은 물론이고, 라틴아메리카 내에서도 원주민 문화의 존재가 두드러지는 페루와 멕시코, 아프리카적 요소가 중심을 이루는 카리브 지역, 그리고 유럽문화가 지배적인 라플라타 강 유역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때 발현되는 경향성의 차이는 주로 사회적 텍스트의 성격과 사회 현실에 대응하는 연구 주체의 이념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그 현실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연구를 둘러싸고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 내에서 전개된 일련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된 문화연구의 지형을 역사적으로 정

리해보고자 한다.

II.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둘러싼 입장들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 대한 입장은 우선 두 개의 층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문화연구 자체를 비판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수행 방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이다.

먼저, 문화연구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주로 넬리 리처드(Nelly Richard), 우고 아추가르(Hugo Achugar)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파 지식인 그룹이 제기하는 것으로, 문화연구를 제1세계 학문제도 내에서 비서구세계를 학문적으로 위계화하고 타자화하기 위한 지적 전략으로 간주하여 배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문화연구가 지닌 문제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학문적 헤게모니화 과정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문화연구의 라틴아메리카적 전통을 강조한다. 가령, 마르틴 바르베로(Jesús Martín Barbero)는 “나는 마르티와 아르게다스를 읽으면서 문화를 발견했다. [...] 우리는 그런 용어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문화연구를 행해 왔다”¹⁾고 밝히고 있으며, 가르시아 캄플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도 “나는 그 학문이 이렇게 불린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문화연구를 하기 시작했다”²⁾고 말한다. 아르헨티나의 문화적 구성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작업에 몰두해온 베아트리스 사틀로(Beatriz Sarlo)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것을 ‘문화연구’라 부르지 않는다. [...] 우리는 미국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문화연구’가 아니라 ‘문화사회학과 문화분석(Sociología de la Cultura y Análisis Cultural)’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³⁾고 언급하고 있다.⁴⁾ 이처럼 1980년대

1) Jesús Martín Barbero(1997), “Nosotros habíamos hecho estudios culturales mucho antes que esta etiqueta apareciera”, Entrevista a Jesús Martín Barbero, *Dissens* 3, 52. Daniel Mato(2002), 26에서 재인용.

2) Néstor García Canclini(1996), “Cultural Studies Questionnaire”,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5(1), 84. Daniel Mato(2002), 26에서 재인용.

이후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급속하게 제도화·권력화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연구자들은 ‘문화연구’라는 용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해왔다. 언급한 학자들 외에 다니엘 마토(Daniel Mato)는 “문화와 권력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연구와 그 밖의 지적 실천들(estudios y otras prácticas intelectuales latinoamericanas en cultura y poder)”이라는 개념을 통해 서구에서 수행되는 문화연구에 대해 일정한 차별성을 모색하고 있다.(Mato 2002, 26)

이들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메타포인 영어 중심으로 학문세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문화연구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수행 과정에서 글로벌 학문 방식에 의해 지역적 특수성이 전유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적 맥락이 사상된다고 본다. 또 더 나아가 문화연구가 1960년대에 영어권 대학제도에서 만들어졌던 지역학 또는 지역연구의 이데올로기를 세련된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문화연구를 제1세계의 학문적 지배라는 식민주의적 의도를 지닌 것으로, 그리고 세계 학문 시장의 확장을 위한 재생산 기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연구의 유행은 ‘지역적인 것(lo local)’의 역사적 맥락을 제거하고 비판적 지역 지식인들의 입장을 형해화(形骸化)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입장은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 내부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전통, 즉 라틴아메리카의 에세이 장르가 보여주었던 분과학문 경계의 해체, 그리고 사회, 역사적 현실개입이라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비판적 사유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문화연구에 대한 이런 비판적 입장은 크게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경향과 문화연구 방법론을 일정하게 수용하는 경향으로 나뉜다. 전자의 입장은 널

3) Beatriz Sarlo(1997), “Cultural Studies Questionnaire”, *Journal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6(1), 90. Daniel Mato(2002), 26에서 재인용.

4) 흔히 문화비평(cultural criticism)으로 명명되는 사를로의 이론적 경향은 넬리 리처드에게서도 발견되는데, 두 사람이 각각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대표하는 문화이론가들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들 지역은 여타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특히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혼혈성과 혼종성 등을 둘러싼 논의보다는 미학적 가치에 더 주목하는 이론적 흐름이 등장한 것이다. 또한 인종이나 종족성을 둘러싼 하위주체 문제, 식민성 문제 등의 라틴아메리카적인 주제보다는 페론주의나 권위주의의 유산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라르센(Neil Larsen)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⁵⁾ 또 후자의 입장은 베아트리스 사를로나 넬리 리처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학비평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문학비평이 문화분석이라는 문화연구 방법론을 수용하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문화연구를 미국 중심의 학문제도에서 수입된 하나의 지적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화연구의 모델이 주변부적 현실을 전유할 때 제기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태도는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 내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연구를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전통과 거리가 있는 서구의 기획에 의존하며, 미국의 대학제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유행하게 된 해게모니적 지적 제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특히 미국의 대학제도 내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문화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일정 부분 이런 비판적 입장은 문화연구 자체에 대한 비판과 겹쳐질 수 있겠지만,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학문 시장이 재편되고 라틴아메리카 출신 학자들이 대거 미국의 대학제도에 진입하여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양산해내면서 비판이 강화된다. 특히, 탈식민주의이론, 하위주체이론,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 등의 담론들이 라틴아메리카를 학문적 대상으로 전유하면서 사회문화적 행위자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라틴아메리카를 하나의 텍스트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니엘 마토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 중심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대학이라는 학문제도를 중심으로 사고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하고 있던 대학제도 밖의 실천들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조직화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글로벌 모델을 통해 학문적 위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Mato 2002, 29) 이러한 입장은 이론의 발화지점에 대한 지나치게 대립적이고 단선적인 이해를 통해 외래이론/토착이론이라는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위험이 없지 않지만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치열한 문제의식의 결과이자 그들의 위기의식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라르센의 다음 글을 참조할 것: Neil Larsen(1995), "The cultural studies movement and Latin America: An Overview", in *Reading North by South: On Latin American Literature, Culture and Politics*, Minneapolis/London, Minnesota UP, 189-196.

이렇듯 문화연구가 학문 시장과 그 안에서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하나의 양식으로 박제화되면서 학위과정이나 논문을 위한 주석화(註釋化) 과정으로 변질되었고, 또 하위주체연구, 탈식민주의이론, 포스트분과학문의 ‘정전’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초기의 ‘진지한’ 문제제기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르시아 캄플리니는 영어권 문화연구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과정보다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해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García Canclini 2003, 14)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텍스트주의’의 강화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대중성, 혼종성, 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 국가성 등의 개념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둘러싼 논쟁과 비판은 결과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연구’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 사이의 이론적 층위의 교환을 통해 정치, 미학, 문화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생산해냄으로써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에서 보여준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1980, 90년대의 혁명운동이나 민주화 과정에서 대안적 형식의 모색이라는 실천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반해 문화연구의 현실은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유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사회주체에 대한 모색의 좌절로 인해 전략적 기획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평면적 분석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러한 우려는 일정 부분 문화연구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낳게 한다.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 점은 민족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계화의 결과로 파생된 민족국가의 역할 축소, 공적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행위자가 아닌 하위주체나 소수자, 파편화된 주체 등을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자 했던 문화연구의 최근 기획들은 일정하게 좌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모색해야 할 길은 다시 문화연구의 형성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진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대안적 삶의 형태와 문화형식을 모색하고자 했

던 문화연구의 초기 문제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유토피아적 상상력과 이러한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실현할 지적, 경험적 연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 문화연구가 생성되었다는 그 역사적 맥락을 재확인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1960년대나 1980년대식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이나 지적 탐구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겠지만, 결국 이러한 긴장을 현재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세계화에 따른 일방적 흐름으로서의 전지구적 보편주의와 이에 수반하는 개별 민족국가의 국가적 기획의 상실에서 비롯하는 긴장 사이에 문화연구가 위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르시아 캄글리니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문제제기는 최근 들어 민족국가의 역할에 대한 주목과 이미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196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이론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García Canclini 2003, 16-17)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에서 제기하는 비판은 문화연구가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전통을 도외시한 서구의 이론적 틀로서 제1세계의 학문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과,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주로 미국의 대학제도 내에서 행해지면서 라틴아메리카를 학문적 대상으로 전유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요약된다. 이른바 문화연구의 텍스트화 경향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초기의 실천적 의미를 상실하면서 지적 박제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존 베벌리(John Beverley), 알베르도 모레이라스(Alberto Moreiras)를 위시한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의 반론이 제기된다. 여기서는 존 베벌리의 경우를 통해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존 베벌리에 따르면, 하위주체연구, 탈식민주의연구, 라티노연구, 여성연구, 문화연구 등 제1세계에서 생산되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과 관련해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이 제기하는 비판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Beverley 2003, 49-50) 먼저, 이러한 담론들은 정체성이나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국의 문제의식이나 탈식민과 관련한 영국의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다문화주의나 탈식민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라틴아메리카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역사 및 사회문화적 형성을 오독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둘째,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들에서 발원하고 다양한 제도적 수단들에 의해 유지되는 이러한 담론들의 권위는 명백하게 혹은 암묵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에 의한 실천을 사상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시 말해, 우고 아추가르가 “라틴아메리카적 사유(latin american thought)”라고 부르는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전통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세계의 이론적 모델의 헤게모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종의 문화적 신식민주의로 작동하며, 이런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학문의 주체가 아닌 이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제1세계의 담론들은 라틴아메리카가 국가적·지역적 정체성이나 발전을 위한 나름의 기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국가의 지속성에 기반한 정치의식, 정치화된 시민사회, 하버마스적 공적 영역, 지역적 기억,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차별적, 대립적 관련 속에서 개별적인 라틴아메리카 민족국가 및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이익을 모색하는 기획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 베벌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수행하는 분과학문에 개입하려는 ‘하위주체들’을 저지하려는 시도로 파악하여 이른바 “좌파 보수주의(Left conservatism)”로 규정한다. 즉, 여전히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모더니즘 미학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려는 ‘완고한’ 지적 태도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혼종과 문화형단애의 호소 뒤에는 대중문화와 새로운 형태의 소비사회 앞에서 베아뜨리스 사를로가 느꼈던 두려움과 유사한 감정, 즉 하위주체가 자신들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계급적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Beverley 2000, 506) 또한 베벌리는 이러한 태도를 일종의 네오-아리엘주의(neo-Arielismo)로 규정하면서, “이론적 실천과 비판적 사유의 형식들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와 동일시하고 이에 맞서 문학과 문학비평,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기억과 가능성의 담지자로서의 문학지식인들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Beverley 2003, 54) 그는 오히려 이러한 담론들이 시민권운동, 뉴레프트, 페미니즘, 반전운동, 게이운동 같은 미국의 좌파 문화로부터 생겨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베벌리는 변화된 상황을 재현하려는 문화연구의 이론적 시도를 헤게모니 기제로만 파악하는 라틴아메

리카 이론진영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이 가지고 있는 문학 및 문학비평 중심의 인문주의적 접근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을 담아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문화연구가 발원한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연구는 대학제도 내에서 기존의 헤게모니 담론을 해체하고 민주적 질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론진영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본질적으로 고급문화(high culture)와 동일시하는 아리엘주의, 즉 ‘문화주의적 관점’보다는 하위주체와 탈식민성을 강조하는 초분과학문적(transdisciplinary) 문화연구가 라틴아메리카 현실의 분석과 재구성에 유용하다고 본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문화연구는 라틴아메리카를 ‘인식’하고 재현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1세계 지식제도의 활동을 통해 일종의 새로운 범아메리카주의를 구성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연구의 요체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확장하는 데 복무하기보다는 ‘좌파적 시각으로부터’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민중적 저항 형식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대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있다.(Beverley, 2003, 55)

이처럼 베벌리를 비롯한 문화연구자들은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의 비판을 “지식인 도시(ciudad letrada)”의 권위를 앞세우는 이론적 보수주의, 신아리엘주의로 규정하면서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발원한 지점의 강조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가지고 있는 생산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의 입장은 흔히 포스트모던 반(反)문학의 모델로 간주되는 ‘증언문학’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보여주듯,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의 ‘오해’를 온전하게 해명해주지는 못한다. 예컨대, 하위주체연구는 무정치적(apolitical) 문학적 아카데미리즘과 결별하고 새로운 이론적 좌파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적인 기획과 함께 출발하였지만, 많은 경우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부정하고자 했던 헤게모니 담론에 포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자들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이 문화 연구의 해계모니화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연구 경향을 미국 대학제도 내에서의 유행을 이용하는 학문적 기회주의로 폄하하는 데 대해 강한 어조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연구를 특정한 정치적 기획 혹은 인식론적 공간을 넘어서는 일종의 세계적 상표로 이해하는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연구에 대한 어떤 특정한 정의가 갖는 인식론적 우월성이나 역사적 우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미국이나 영국으로 대표되는 제1세계 문화연구의 보충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역사적 문제의식과 기획을 지닌 완전히 독립적인 문제제기의 장(場)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Ⅲ.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역사적 고찰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제로 작동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 그리고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⁶⁾

많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문화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에서 제기하는 비판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전제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특징을 정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아브릴 트리고(Abril Trigo)는 이 두 가지 전제와 관련해, 먼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전지구

6)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이 장은 전적으로 델 사르토(Ana del Sarto), 리오스(Alicia Rios), 트리고(Abril Trigo)가 엮은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2004)에 기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주요 논문들이 나중에 이 책에 묶였고, 필자의 문제의식 또한 많은 부분 이 책의 편자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 장은 이 책의 문제의식을 따라가면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적 층위에서 전개되는 이론적 장(場)인 것은 사실이지만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문화적 과정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종래의 인문학적·분과학문적 패러다임과의 인식론적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 없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유 전통과 그 역사적, 문화적 지속의 결과라는 측면이 일정 부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Trigo, 2004, 4)

아브릴 프리고가 제시한 전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영국의 문화연구나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태도는 그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자들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영어권 문화연구와 서구의 포스트이론이 라틴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연구와 포스트모더니즘이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많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일종의 문화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물론 1980, 9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화연구가 정착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 글로벌 이론 층위에서 전개된 중요한 변화와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모더니즘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에서 포스트모던적 학문으로의 체계모니 이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문화연구가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고유한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듯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 역시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독특한 성격을 발현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이론 층위에서 진행된 인식론적 단절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지속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기원을 유럽의 문화연구에서 찾는 경향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풍부한 비판적 지식 전통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이다.

1.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지식 전통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배태되었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풍부한 지적 사유와 서구의 이론들이 결합하면서 일련의 이론적 혼종을 경험한 후에 생성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흔히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사유라 칭해지는 비판적 에세이 전통이다. 주로 19세기 독립 이후에 제기된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예컨대, 국가적인 것과 라틴아메리카적인 것, 도시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 전통과 모더니티,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실천 등의 문제들이 그 대상이었다. 리오스(Alicia Ríos)는 이러한 비판적 에세이들을 다섯 개의 인식 그룹(cognitive constellations)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국가문제(the national question), 모더니티와 근대화(modernity & modernization), 대중성(the popular), 정체성/타자성/종족성(identities/alterities/ethnicities)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Ríos, 2004, 15) 이러한 비판적 에세이는 독립시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중요한 지적 실천의 형식이 되고 있다.

알폰소 레예스, 호세 마르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9세기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정치 영역과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러한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유라고 하는 지적 경향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지식인들은 직업적 저널리즘의 등장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성찰과 사유를 제출했고, 이것이 비판적 사유라는 흐름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전통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20세기 후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좌파투쟁이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쿠바혁명의 성공 이후, 이러한 지적 흐름은 보다 직접적으로 현실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이론들이 대두하게 된다. 라틴족(정신주의)과 앵글로색슨족(물질주의) 간의 대립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일반화를 시도한 이전 시기의 아리엘주의(arielismo)가 지닌 보편주의적 허상을 넘어서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각성은 지적 영역에서 칼리반(Calibán)으로 대표되는 이론적 전화(轉化)를 가져왔고,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흐름 안에서 종속이론이나 해방신학 같은 사회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에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현실의 역동적인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지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에서 리베이루(Darcy Ribeiro)의 지리문화적 고고학(geo-cultural anthropology), 페르난데스 레타마르(Antonio Fernández Retamar)의 칼리반주의(calibanism), 칸디두(Antonio Candido)의 사회비평(socio-criticism), 라마(Ángel Rama)의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꼬르네호 폴라르(Antonio Cornejo Polar)의 이종혼합성(heterogeneity) 등의 이론으로 결과되었다. 이들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선구자들은 종래의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에세이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동시에 이와 차별화되는 입장을 드러낸다. 리오스는 이들 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Ríos, 2004, 28-32) 즉, 비판적 지식인들은 국가적 예술과 문학의 통합능력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으며, 자신들의 문화적 장치들이 지닌 가치평가적·미학적 범주의 존재에 강하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연구자들은 이러한 범주를 배제하는 동시에 문학과 예술을 권력기제로 간주하여 비판한다. 바로 여기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사유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이제 더 이상 문화와 예술이 갖는 국가적 통합 기능이나 미학적 가치 평가에 기대지 않고 나름의 사회적 의제에 따라 현실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형성

1960, 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은 1980년대 들어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점차 좌절과 비판주의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제 1960년대의 혁명적 낙관주의는 쇠퇴하고 비판주의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지적 태도에 깊게 투영되기 시작한다. 낙관주의의 후퇴라는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린 문화연구는 좌파의 정치문화적 기획의 실패, 신자유주의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장, 미국문화의 급격한 유입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전략들을 수렴해 내기 시작한다.

세계화 논리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유연화, 공적 영역의 사유화, 국가 기능의 쇠퇴, 문화산업의 팽창과 대중문화의 확산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1980년대 말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과 연구자들 사이에 하나의 합의가 도출된다. 즉, 종속이론 같은 비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방법이나 구조주의의 다양한 분파를 포함하는 1960년대의 거대담론은 급변하는 현실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론적 지평, 새로운 비판적 패러다임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지적 입장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주된 인식 그룹들을 다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개념과 이론들을 창조적으로 재절합하고 자신들의 연구방법론을 상상적으로 재개념화하는 과정은 정치사회적, 지리문화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오랜 비판적 사유 전통과의 생산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가르시아 캉글리니, 베아트리스 사를로, 마르틴 바르베로 등의 진술에서 보이는 문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부터 진 프랑코(Jean Franco)와 까를로스 몬시바이스(Carlos Monsiváis)를 필두로 그들의 작업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적 공간으로서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형성은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주의의 또 다른 부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이와 같은 외부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출현하였고, 심지어 이 같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질서의 본질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은 문화연구를 일종의 수정주의적 태도로 규정한다. 즉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 방법을 포기하고 미시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그것에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의식적인 지적 기획이 바로 문화연구이며 그 안에는 전지구화 현상을 둘러싼 지식인 내부의 갈등과 실천적 고민이 내재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이러한 비판은 일면적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1980년대에 세계화와 맞물린 정치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민족국가는 서로 다른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할 능력과 적법성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 국가적 의제를 강제할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공적 공간의 협소화, 정당 정치의 퇴조 등과 맞물리면서 이제 문화가 중요한 사회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모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를 통해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계시장이나 기술을 통해 초국적 기업이 문화가 작동하는 공간과 규칙을 지배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자들은 1960년대의 선구자들이 구축해 놓은 이론적 기반을 더욱 확장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킨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창립자로 평가받을 만한데, 델 사르토(Del Sarto)가 제시한 대로, 식민시기연구(colonial studies),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modernity/postmodernity),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 미디어와 대중문화(media & mass-culture), 젠더와 소수자(gender & minorities) 등이 이들의 주된 연구 영역을 구성한다.(Del Sarto 2004, 166-169) 물론 이런 경향 내에서 이론가들은 각기 다른 이론적 경계를 횡단하면서 나름의 독창적인 문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몬시바이스, 로베르투 슈바르츠(Roberto Schwarz), 사를로 등은 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 연구 및 미디어와 대중문화 연구를 횡단하고 있고, 가르시아 캉플리니와 마르틴 바르베로 등은 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 연구와 문화적 혼종성, 미디어와 대중문화 연구 등의 영역을 가로지르며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대표적인 업적들을 생산하고 있다.

3. 1990년대 이후의 경향

아브릴 프리고는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특징을 미국의 대학 제도에서 진행된 담론의 헤게모니화와 관련지어 설명한다.(Trigo, 2004, 347-348) 1990년대는 80년대 문화연구 설립자들의 이론적 지평을 넘어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풍부한 결과를 생산한 시기이다. 그러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중심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대학으로 옮겨가게 된다. 여기에는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관련 학문 시장의 확대, 기존 지역연구 패러다임의 일정한 한계, 세계화에 따른 정보와 인력 이동의 수월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주로

미국의 대학제도를 배경으로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냉전시대 이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활성화된 라틴아메리카니즘(latinamericanism)과 동일시되어 비판받는 계기가 된다.

1990년대 미국 대학에 자리 잡고 있던 이론적 경향은 하위주체연구, 해체주의적 담론분석, 탈식민주의연구, 세계화의 영향과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초국적 문화연구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초점과 정치적 어젠다, 연구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주체 문제, 즉 새로운 정치적, 문화적 행위자의 모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족국가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국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새로운 주체의 모색은 하위주체연구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의 하위주체의 모색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들은 탈중심적이고 파편화된 주체들에 대한 강조에서 또 다른 지식 생산 과정에 개입해 있는 지식인들의 헤게모니 욕구를 읽어낸 것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체나 개별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주체의 모색은 신식민주의적 개입으로 간주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연구를 라틴아메리카를 전유하기 위해 미국의 대학제도가 만들어낸 권력기제로 파악하는 비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었고,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 또한 거뒀다. 제기된 여러 반론 중에서 존 베벌리의 경우는 문화연구의 미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요한다. 베벌리는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비판에 맞서 문학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위주체적, 식민적 조건의 징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더 나아가 국가적, 지역적 정체성의 강조는 라틴아메리카 민족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인종적, 사회적, 성적 배제와 종속을 재생산하는 데 복무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민족국가의 역할 부정, 하위주체와 주변적 주체의 모색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행되게 된다.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영역에는 당시의 지배적인 담론들의 영향을 받아 혼종이론, 인터아메리카 문화연구,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 탈식민주의와 탈서구주의(postoccidentalismo), 문화비평, 세계화에 대한 초국

적 문화연구 등 다양한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그룹이 1997년 활동을 중단한 것을 기점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 진영 내에서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균열과 몇몇 이론들의 좌절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의 소멸이라는 평가가 대두될 정도로 이론진영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세계화에 대한 유일한 저항의 가능성은 폐허에서 비판적으로 호느끼는 것뿐”이라는 회의적 진술에 잘 나타나있듯이, 이러한 이론적 모색의 좌절은 이론적, 실천적 층위에서 지식인들의 태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21세기에 들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이론적 기획으로서의 좌절, 더 나아가 현실에 대한 실천적 개입의 좌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화연구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아브릴 트리고의 전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Trigo 2004, 14). 그는 문화연구의 이론적 좌절을 총체적 좌절 혹은 단절로 예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조정되어가는 점진적 과정이자,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유 전통의 대표적인 형태들이 복귀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전지구적인 추세와 지역적인 흐름의 양 극단 사이에 위치한 국가의 역할, 모더니티와 근대화, 초국적 대중문화의 영향, 이러한 변화와 관련한 정체성 문제 등의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하위주체연구에서 나타나는 민족국가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보다 직접적으로 민족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전통적인 의미의 행위자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1960, 7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이론들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론적 기획으로서 일정한 좌절을 겪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유 전통으로의 복귀를 불러왔는데, 결과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그룹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일면 타당했음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자세로 외부 세계의 이론적 자극을 적극 수용하고 현실을 보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해석하고 재현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

를 미국적인 학문, 해계모니적인 학문, 박제화된 실천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라틴아메리카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적 실천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그룹이 가지고 있는 문화연구에 대한 입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고유한 비판적 사유 전통의 풍부한 자양에 기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서구의 이론틀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적 실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일정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가 미국의 대학제도에서 수행되면서부터였다. 하위주체연구를 비롯한 이 시기의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민족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행위주체의 모색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에 대해 ‘과연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가적인 것에 기반한 정치가 영향력을 상실할 정도로 사회적 변화의 폭이 큰가’, 또 ‘이런 입장이야말로 서구의 이론진영이 만들어낸 이론틀을 라틴아메리카에 관념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의문들은 서구이론에 대한 종속적 입장에서 벗어나 1960, 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사유 전통에서 문화연구가 직면한 이론적, 실천적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 이론진영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연구는 다양한 이론적 틀과의 변증법적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안적, 대항해계모니적 이론 형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참고문헌

- Beverley, John(2003), "Adiós: A National Allegory(Some Reflections on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In Stephen Hart & Richard Young(eds.), *Contemporary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 _____ (2000), "Postscriptum", In Mabel Moraña(ed.), *Nuevas perspectivas desde/sobre América Latina: El desafío de los estudios culturales*, Santiago de Chile, Editorial Cuarto Propio/Instituto Internacional de Literatura Iberoamericana.
- De la Campa, Román(2004), "Latin American Studies: Literary, Cultural and Comparative Theory", In Sophia A. McClennen & Earl E. Fitz(eds.),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and Latin America*, Indiana, Purdue UP.
- Del Sarto, Ana(2004), "The 1980s: Foundations of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In Ana Del Sarto, Alicia Ríos and Abril Trigo(eds.),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London, Duke UP.
- Del Sarto, Ana, Ríos, Alicia and Trigo, Abril(eds.)(2004),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London, Duke UP.
- García Canclini, Néstor(1989),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D. F., Grijalbo.
- _____ (2003), "Cultural Studies and Revolving Doors", In Stephen Hart & Richard Young(eds.), *Contemporary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 Hart, Stephen & Young, Richard(eds.)(2003), *Contemporary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 Larsen, Neil(1995), "The cultural studies movement and Latin America: An Overview", In *Reading North by South: On Latin American Literature, Culture and Politics*, Minneapolis/London, Minnesota UP.
- Mato, Daniel(ed.)(2002), *Estudios y otras prácticas intelectuales latinoamericanas en cultura y poder*, Caracas, CLACSO.
- Ortega, Julio, "Towards a Map of the Current Critical Debate about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In Sophia A. McClennen & Earl E. Fitz(eds.),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and Latin America*, Indiana, Purdue UP.
- Richard, Nelly(2002), "Saberes académicos y reflexión crítica en América Latina", In Daniel Mato(ed.), *Estudios y otras prácticas intelectuales latinoamericanas*

en cultura y poder, Caracas, CLACSO.

- Ríos, Alicia(2004), "Traditions and Fractures in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In Ana Del Sarto, Alicia Ríos and Abril Trigo(eds.),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London, Duke UP.
- Sarlo, Beatriz(2003), "Cultural Studies and Literary Criticism at the Cross-roads of Value", In Stephen Hart & Richard Young(eds.), *Contemporary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Arnold.
- Trigo, Abril(2004), "The 1990s: Practice and Polemics within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In Ana Del Sarto, Alicia Ríos and Abril Trigo(eds.),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London, Duke UP.
- Yúdice, George(2002), "Contrapunteo estadounidense/latinoamericano de los estudios culturales", In Daniel Mato(ed.), *Estudios y otras prácticas intelectuales latinoamericanas en cultura y poder*, Caracas, CLACSO.

김현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pedrokim@snu.ac.kr

이성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anselmus@snu.ac.kr

논문접수일: 2007. 10. 28.

심사완료일: 2007. 11. 15.

게재확정일: 2007. 12. 10.